

헬조선 변혁 10대 투쟁 과제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
2025년 8월 23일

www.k-rev.org
문의 010-4725-3677



하나. 독점재벌 완전 해체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재벌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재벌은 그 자체가 불법 기업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은 이런 불법으로 나라의 경제적 부를 소수의 손에 집중함으로써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또 이 경제력으로 사회권력과 정치권력까지 좌우하여 한국사회를 재벌과두제 사회로 만들어 양극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점재벌은 신자유주의를 무제한적으로 관철시켜 대자본과 중소·영세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기업규모 간 양극화와 정규·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빚어내고 있다. 이것이 대학서열화와 입시과열을 낳고, 사교육병을 낳고,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재벌개혁은 답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재벌개혁을 한다며 상호출자·순환출자 못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로 대체했다. 그러나 문어발식 기업집단을 총수일가가 소유·지배하는 재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재벌체제 해체는 재벌해체가 아니다: 문어발식 기업집단은 그냥 둔 채 재벌 총수일가의 직접 경영만 배제하자는 재벌체제 해체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보았듯이 총수일가가 대주주로서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재벌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 2차대전 이후 미국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는 차원에서 전범 기업인 재벌을 해체했던 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소급입법으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을 전액 환수하며, 재벌 총수 일가족이 관련기업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게 못 박아야 한다.

둘.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은 물론 어떠한 노동자도 배제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주40시간제의 경우와 같이 이런저런 예외조항이나 단서조항을 붙여 원래 정한 기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금한다. 법정 근로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경영자를 엄벌에 처한

다.(숨방망이 처벌 근절)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 자 도입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탄력근로제, 계약직 보호법 등을 철폐한다. 선진국에 조응하게 법정 근로기준을 상향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노조없는 사업장 노동자에게 단결의 자유를 보장한다.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자,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한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선파업 후교섭을 보장한다.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무노동무임금제를 폐지한다. 비공인 파업 금지를 폐지한다. 파업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을 배제한다. 공무원과 교사, 소방관과 경찰에게도 단결과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타 파업의 자유를 봉쇄·무력화하는 노조법상 독소조항 일체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현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완전 철폐하고 노동보호입법을 새로 제정한다.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 기능을 축소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한다.

▲노동조건의 획기적 개선: 기업규모 간, 고용형태 간 노동조건 및 임금 격차를 타파하여 모든 노동자가 격차와 차별 없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모든 노동자의 실 노동시간을 주40시간제로 단축하고(주52시간제 금지!) 빠른 시일 내에 주30시간제로 단축한다. 휴가 기간을 최저 연 30일 수준으로 연장한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간병휴가제를 실시한다. 육체노동자에게도 안식년을 제공한다.

셋. 주택 재분배/택지 국유화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

▲주택 재분배: 많은 국민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하여 고생하는 원인은 주택분배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주거빈곤 문제는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 답이 아니고 있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소유로부터 실거주자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 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몰 수하여 실거주자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야 한다.

- ▲ 높은 집값의 원인은 높은 땅값이므로 택지는 국유화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주택 거래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기관이 관장 해서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싱가포르를 참조하자! 초저출산율의 주된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다. 국가소멸을 면하고자 한다면 이런 혁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넷. 기초연금 월100만원으로 노인빈곤 타파

- ▲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 이라고도 국가인권을 말할 것인가? 이것은 노인학대다.
- ▲ 노인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을 타파하려면 국민연금 개혁 타령만 하지 말고 노인기초연금을 지금 즉시 월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다섯. 보육에서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전면 국영화와 무상화

- ▲ 교육의 이념부터 재설계 돼야 한다. 지금처럼 자본을 위한 인재 육성이나 노동력 양성이, 또는 명문대 입학 통한 출세와 성공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인간성 자체, 인간 존엄성의 해방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 ▲ 이런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은 사적 영리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영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아교육(보육)과 평생교육도 포함된다.

여섯. 예방에서 치료까지 보건의료 국영화와 무상화

- ▲ 보건의료의 중점을 발병 후 치료보다 예방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돈 되는 의료보다 필수의료가 우선돼야 한다. 의료이 이렇게 바뀌려면 최근 의료대란에서 보았듯이 의료계 전반이 혁명적으로 변혁돼야 한다. 병원도 의사들도 나아가 자식을 의사 만들려는 학부모들도 모두 의료에 대한 관점을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 병원, 의원과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은 국영화되고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국영화·무상화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들을 참조하자!

일곱. 자본주의 기업농(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는) 금지와 소농 우대. 농업·농촌 공동체성 보호와 육성

- ▲ 농업은 양극화하여 대농 위주로 변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소농을 보호하기보다 자본가적 기업농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것은 또 농촌소멸을 재촉한다. 농업의 자본제화는 금지돼야 한다. 소농을 우대하고 농업과 농촌에 공동체성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여덟. 국가보안법철폐 등 반민주악법철폐와 국가폭압기구 해체

- ▲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를 집행하는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 이번 내란사태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여전히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억압기구들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판사·검사, 경찰청장, 검사장, 법원장 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아홉. 제헌의회 소집으로 민중헌법 제정과 제7공화국 건설

- ▲ 현행 헌법대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을 만들 수 없다. 민중이 주도하는 제헌으로 민중헌법을 제정해야만 참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 ▲ 민중의 주도하에 개헌 아닌 제헌을 하려면 제헌의회가 소집돼야 한다. 그리고 제헌의회를 소집하려면 현행 헌법에 제헌의회 소집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칠레의 경우를 참조하자!
- ▲ 새 헌법에는 권력구조(제왕적 대통령제) 수술만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변혁과제들이 포함돼야 하고, 민중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민중권력이 성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자유와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중간평가제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열. 노동자·민중 총단결 총투쟁으로 민중권력 쟁취

- ▲ 이런 민중헌법 하에서 민중이 정치권력을 전취하고 민중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중권력을 쟁취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21세기형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인공지능은 노동자와 인류에 대한 자본의 무도한 도발이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첫 번째 주목되는 것은 인공지능 붐이다. 대선 당시 100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더니, 취임 후 대통령실에 AI수석 직을 신설하고 기업·공공·국민 등 사회 전 분야에서 AI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붐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바람몰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국가가 이런 커다란 정책 문제를 국민적 검토와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여당과 야당은 정쟁에 골몰하고 있을 뿐 경제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인공지능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언론이나 학계도 마찬가지다.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공지능 문제를 국민의 공론에 부쳐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제출한다.

각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총론적 입장에서 말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에는 **약(弱)-인공지능**과 **강(强)-인공지능**이 있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도구로 역할하는 인공지능이다. 이 약-인공지능은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정보화 기술혁신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인간처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 정보화 기술이다. 이것만 해도 가히 혁명적이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강-인공지능은 그것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은 인공지능이다. 강-인공지능에는 **인공일반지능(AGI)**과 **초지능(SI: 슈퍼인텔리전스)** 두 차원이 있다. 인공일반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어떤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수준의 인공지능이라면, 초지능(초인간지능ASI이라고도 한다.)은 인간의 지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빅테크들은 약-인공지능과 달리 이런 강-인공지능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그것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인류 역사에서 불의 발견에 비견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두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구별된다. 약-인공지능 기술은 현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대적으로 사용되면 인간노동은 사라지고(일찍이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예고했

듯이 ‘노동의 종말’이다!) 노동자의 많은 부분이 장기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 그러므로 그것의 개발과 사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단, 사회주의에서는 약-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은 그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므로!

강-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좀 더 단호하다. 강-인공지능은 어떤 사회체제 아래서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인공지능은 개발되어서도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에서는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공지능(구체적으로는 그 소유·관리자)의 정신적 지배를 받는 좀비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상과학 영화에서와 달리 인류가 초지능에 의해 생물학적으로 절멸될 위험성도 있다.

약-인공지능 : 대량실업이나 노동시간 대폭 단축이나

약-인공지능은 ‘피지컬 인공지능’이나 ‘버티컬 인공지능’ 형태로 노동과정에 사용된다. ‘피지컬 인공지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기계에 탑재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간노동은 전적으로 또는 대대적으로 인공지능의 작업(노동?)으로 대체된다. 이처럼 ‘피지컬 인공지능’은 육체 노동자의 노동을 대량 소멸시킨다. 이런 무인공장을 다크-팩토리라고 한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팩토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 운수산업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 화물차가 도입되면 역시 일자리가 대거 소멸될 것이다. 이미 배송업무에도, 창고관리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버티컬 인공지능’이란 분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이다. 이것은 인공일반지능(범용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서비스산업에서는 이미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 금융, 공무원과 교사 같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업무를 대신하거나 보좌함으로써 일손을 크게 줄일 것이다. 심지어 코딩 업무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어 IT산업의 꽃인 프로그래머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 선망하는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도 다수가 실업자가 될 것이다. 이들의 업무는 인공지능에 의해 아예 대체되거나(예컨대 인공지능 기반 수술 로봇 도

입으로)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아 수행됨으로써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프리랜서 작가나 카피라이터의 일자리도 인공지능 즉 기계지능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런 문제가 불 보듯 뻔한 데도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과거 산업혁명 때 마부가 없어지면서 자동차 운전사가 생겨났듯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므로 걱정할 바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그 때에는 마차를 자동차로 바꾸면서 마부를 자동차 운전사로 대체했지만 지금은 자동차는 그대로인데 운전사를 사람이 아닌 기계 즉 소프트웨어로 대체한다. 이게 어떻게 새 일자리로 대체되는 건가? AI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 빅테크 자본가인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조차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들은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까드니 보편적 고소득을 제공할까드니 하며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이 디스토피아는 자본주의하에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지는 않다. 생산수단을 자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소유하는 사회라면 사정이 백팔십도 달라진다.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에게 유익한 경우에만 도입될 것이며, 인공지능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그에 상응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가 더 많은 가치분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자유시간에 자신의 고귀한 인간성인 보편적 이타성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표현하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유토피아일 것이다.

강-인공지능 : 현생인류(호모사피엔스)의 존속이나 죽음이나

빅테크 자본의 전망목표는 강-인공지능 즉 인공지능 일반지능(AGI)과 초지능(SI)이 구현된 사회와 시대이다. 이 강-인공지능은 최근 뜨고 있는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달리 의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표현처럼 더 이상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이다. 더구나 인간의 지능을 월등하게 초월하는 지능을 가진 지배자적 존재이다. 인공지능 일반지능도 그러하지만 초지능에 이르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이다.

컴퓨터 과학자이며 미래학자인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 레이 커즈와일의 최근 저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2024년)나 인공지능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인 닉 보스트롬의 저서 『슈퍼인텔리전스 - 경로, 위험, 전략』(2014년)을 읽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들은 기술의 발전은 자연필연적이며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인공지능 일반지능(AGI)을 거쳐 초지능

(SI) 쪽으로 기하급수적 속도로 발전해 간다고 전망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초지능 사회의 도래에 대해 적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이들만이 아니라 많은 인공지능 이론가들이 그렇게 평범한 인간들을 다그친다. 인공지능 일반지능 시대와 초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고 공진화해야 한다고. 그런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과 초지능을 향한 공진화는 불가능하다. 약-인공지능이 아닌 강-인공지능 하에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자신의 좀비로 지배하거나 자신의 지배에 도전하겠다고 덤벼들면 절멸시키거나 둘 중의 하나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의식은 없지만 매우 강력한 이질적인 지능인) 이 지능을 잘못 다룰 경우 그것은 지구에서의 인간 지배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의식의 빛 자체를 꺼뜨려 우주를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넥서스』, 2024년)

이런 초지능은 사상·이론가들이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빅테크 자본은 이미 그런 이데올로기가 예고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메타의 소유·경영자 저커버그는 강-인공지능을 선점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구소’를 만들고 수천억 원의 돈을 제공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소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2002년 달과 화성 식민지화를 위해 ‘스페이스X’라는 우주탐사 기업을 만들었고, 2024년 대규모 우주선 ‘스타십’을 지구 궤도에 올려보내고 귀환토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추구하는 전망목표는 실현가능할까?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일부만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런 초지능 사회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정신적 노예인 좀비가 되거나(실은 인공지능을 소유·관리하는 빅테크 자본 및 이들을 후원하는 국가의 좀비가 된다.)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초지능에 의하여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절멸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이 자기의 지배에 도전하는 인류를 절멸시킬 위험은 100% 예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본의 도발 앞에서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사람들은 이를 인류의 ‘실존적(existential) 위협’이라고 말한다. 자본은 노동자를 영구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무도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 위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은 혁명으로서만 제거될 수 있다. 자본가를 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떨쳐나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준비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급진민주주의 혁명이!**